

레스토랑(Restaurant)

레스토랑은 프랑스에서 발생했고, 레스토랑의 발전에 프랑스가 큰 역할을 해왔다. 최초의 레스토랑 경영자는 1765년 파리에서 수프판매점을 했던 A. 블랑자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현대적 의미의 레스토랑이 아니고 '정력을 회복하는 곳'으로 불리는 스프를 파는 곳이었다. 당시 숙박업소에서조차 종종 주인이 투숙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고객이든 고급 식단으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공공장소로 만들어진 것은 블랑자의 식당이 처음이었다.

블랑자는 식당 문 위에 표지판을 달고 "블랑자는 신기한 강장제(restaurant)를 판다. 내게 오라, 당신 위의 고통을 내가 다시 채워 주겠다."며 레스토랑을

광고했다.

이 식당은 바로 그 표시판에서 이름을 땄는데 지금도 restaurant이라는 단어가 영어, 프랑스어, 덴마크어, 루마니아어 등 다른 나라의 언어로 조금씩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그런데 블랑자의 식당은 뜻하지 않은 소송으로 인해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즉 블랑자는 소스 조합의 일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스나 라고트(소스의 일종)는 팔 수 없어서 손님들에게 White wine 소스를 넣은 양의 다리를 제공하였는데, 조합원들이 양의 다리에 white wine 소스를 묻힌 것은 라고트의 판매나 다름없다고 법적으로 시비를 걸었다.

재판은 블랑자의 승리로 끝나고 블랑자의 식당은 더욱 유명



해졌다.

미식가였던 루이 15세는 베르사유에서 그것을 맛보고는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그럼에도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블랑자의 식당에 몰려들었다.

본격적인 레스토랑은 1782년 무렵 보빌리에가 파리에서 가장 큰 요리점을 경영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보빌리에는 미식가이자 뛰어난 요리법 저자로서 뒷날 프랑스 요리법의 기본서가 되는 『요리의 기술』을 펴내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이전의 귀족들은 집안에 훌륭한 조리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혁명을 거친 뒤에는 개인 가정에서 조리사를 구하는 경우가 줄어들었고 왕족과 귀족들을 위해 요리하던 전문 요리사들이 시중에 나와 먹고

살기 위해 다투어 레스토랑을 개업했던 것이다.

1804년에 이르자 거리의 레스토랑 수는 500군데에 달했으며, 귀족 유명인들은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기는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돈 많은 귀족들은 파리의 레스토랑 '맥심'에서 저녁을 즐겼고, 소설가 발자크는 루브르궁 근처의 '베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엄청난 양의 굴, 생선, 육류요리를 먹고 술을 즐겼다고 한다.

마들렌 모퉁이에 자리잡은 '뒤랑' 레스토랑은 아니톨 프랑스와 에밀 졸라를 비롯한 정치가, 예술가, 작가들이 즐겨 모임을 가졌던 곳이다. ●

에티켓(etiquette)

뒷간 · 측간 · 해우소(解憂所)

흥
 旱

히 좌식 변기가 서양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훨씬 앞섰다. 불국사에는 돌로 만든 좌식의 수세식 변기가 있고 임금이 쓰던 궁중의 '매우틀'은 가에 우단을 씌운 훌륭한 좌식 변기였다. 임금의 대변은 '매우(梅雨)'라고 불렀는데, 매우틀이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지 '매화타령'의 흥까지 유래했다.

이에 반해 유럽에서는 17세기까지도 대부분 화장실이 없어서 왕후 귀족들조차 으스스한 곳에서 대소변을 봤다. 수도에 연결된 최초의 수세식 변기는 1589년 엘리자베스 시대 때 발명되었지만 대중화되지 못했다. 머리 위에 설치된 물통으로부터 물이 쏟아지도록 만든 수세식

변소는 1770년대에 알렉산더 커밍스가 고안했다. 일본은 12세기 헤이안 시대까지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

에티켓이란 말은 화장실이 없었던데서 생긴 말이다. 루이 14세 때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사는 정원을 손질할 때마다 고민에 빠졌다. 아무리 정성들여 가꾸어도 어느새 누군가가 화단이나 잔디를 짓밟아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이다.

궁전에서 생활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나무 그늘을 찾아다니며 불일을 보는데 그 원인이 있었다. 정원사는 생각 끝에 지나가는 길마다 '화단에 들어가지 말 것. 소변은 저곳에서'라는 푯말을 세웠다. 이 푯말을 가리키는 말이 프랑스어로 에티켓이다. 어원은 계시판, 설명서를 의

etiquette

미하는 '스틱켓'에서 나온 것으로 길을 알려주는 꽃말을 가리키는 말이 되면서 후에 에티켓이 되었다. 처음에는 누구도 꽃말에 신경쓰지 않았으나 얼마 후 에티켓에 써 있는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루이 14세의 명령이 있자 상황이 달라졌다.

그 후 에티켓이란 말의 뜻이 확대되어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고 1820년경에는 미국에서 『신사숙녀를 위한 미국의 에티켓』이란 책이 나올 정도로 생활예절이라는 의미로 자리매김 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기원전부터 화장실을 만들어 생리적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는데 다양한 화장실 명칭에서 느낄 수 있듯 육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제의 해결 공간으로 생

각하는 여유가 있었다. 뒷물을 하는 공간이란 뜻으로 복수간, 옆에 있다 해서 측간, 생리적 걱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근심까지 소멸시킨다 해서 해우소(解憂所), 몸속을 깨끗이 해준다 해서 정방, 농기어린 뜻으로 부르는 작은 집 등 그 명칭이 참으로 다양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된 말은 뒷간이었다.

뒷간이란 말의 유래에 대해 김광언은 「민속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찬바람을 등에 지고 내려온 우리 민족은 언제나 앞이 남쪽이고 뒤가 북쪽이었다. 똥 오줌 누는 공간을 뒷간이라 이르게 된 것은 1459년 『월인석보』에서 처음 나타난다. ●